

갈보리 소식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2011 교회표어: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행6:4)

① 사순절: 오늘은 사순절 세번째 주일입니다. 때로는 금식기도로 자신을 성찰하는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② 당회: 3월 정기 당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③ 예고: 다음 주일 1부 예배는 양명득 목사가 설교하십니다. (한국 총회 사무국장)

④ 기도회: 화요기도회가 7시 30분에 Duke Institute에서 있습니다. (12-14 Huron street, Takapuna)

⑤ 월례회: 4 남선교회, 1 여선교회 월례회가 친교 후에 있습니다.

⑥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실에서 있습니다.

⑦ 찬양 경연대회: 공동체별 찬양 경연 대회가 이번 주 수요일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심사기준: 참가자 수, 공동체별 특성 살리기, 팀원간의 단합
시상내역: 인기상, 화목상, 동원상, 참가상, 최우수상

⑧ 모임: 찬양 경연대회 순서 추첨을 위한 각 공동체장(인도자)모임이 1부 예배 후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⑨ 교육: 세례자 예비 교육이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 신청 바랍니다. (교육: 4월 3일, 10월 17일 2시 50분, 문답 17일 주일 4시, 세례일 4월 24일 부활주일)

⑩ 판매: 1남선교회에서 교회건축헌금 모금을 위해 Entertainment Book을 판매합니다. 가격은 \$65이고 한부당 \$13불이 교회건축헌금으로 적립됩니다. (문의: 강동호, 최장한, 박덕철집사)

⑪ Daylight saving: 토요일 (4월 2일) 끝납니다.

⑫ 환영예배: 뉴질랜드 장로교단 가입 환영 예배가 있습니다.

일시: 4월 2일 오후 7시 장소: Forrest Hill Presbyterian 교회 (151 Forrest Hill Rd)

4월 예배담당 안내

	1부기도	2부기도	수요기도	예배 안내	새신자 안내	주차안내	주방봉사
3일	이광희	방명아	김성희	박일영/임혜자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옥	정희자/한상순/김재연
10일	현석호	장연식	김수정	박일영/임혜자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옥	정희자/한상순/김재연
17일	고성일	원미경	김영옥	박일영/임혜자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옥	정희자/한상순/김재연
24일	박덕철	박병민	김윤숙	박일영/임혜자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옥	정희자/한상순/김재연

갈보리교회 선교지

해외 선교지

▷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집시지역)

▷ 중국: 김강한목사 (탈북자지역)

국내 선교지

▷ City Mission 섬김

▷ 밀알장애우 봉사

4월 교회일지

사순절 넷째 주일:

4월 3일 (주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

4월 10일 (주일)

종려 주일 (성찬 주일):

4월 17일 (주일)

한주간 저녁기도회:

4월 18-22 (고난주간)

부활주일 (세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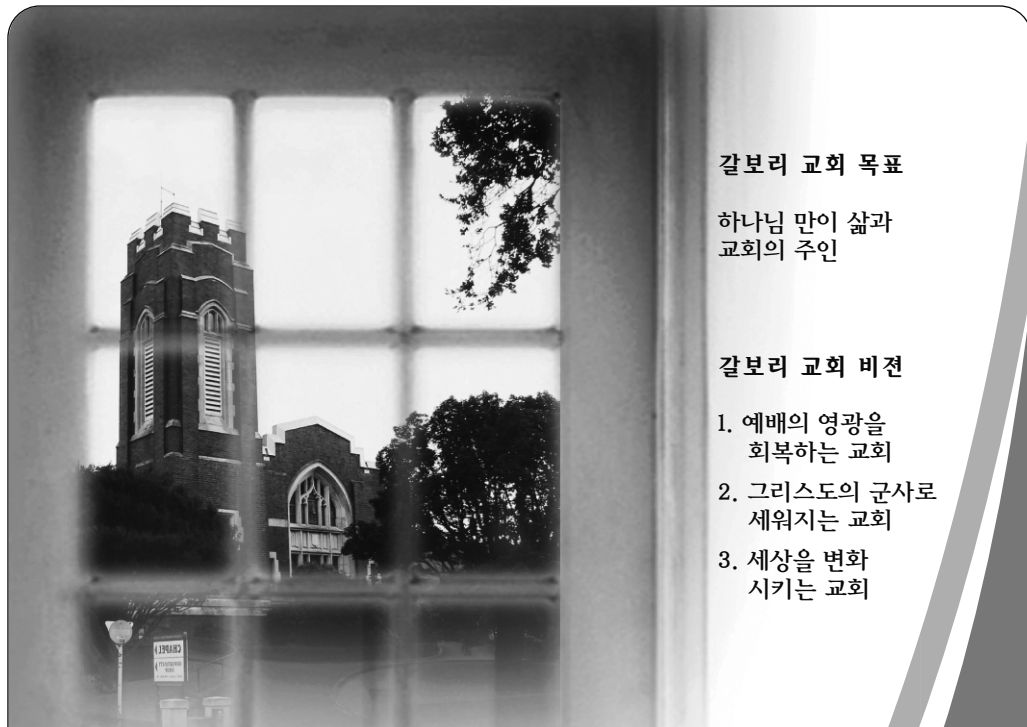
4월 24일 (주일)

갈보리 금주 기도 제목

- 영육으로 고통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유함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김경수, 김기섭, 박규남, 김현주)
- 지구 곳곳에 일어나는 지진과 자연 재해가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도록 기도함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슬픔 중에 있는 자들에게 임하시도록
- 사순절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경건과 절제로 고난중에 있는 지체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깨닫도록
- 모든 한인 교회가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의 자리를 통해 복음을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갈보리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 이태한
부목사	: 심창진
교육전도사	: 진혜령
시무장로	: 김영길, 이광희 정관영, 현석호
은퇴장로	: 김교섭, 박일영 정덕수, 최재학 유승재, 박재용
지휘	: 신경화
반주	: 손민영, 유지선 조은유, 한누리



갈보리 교회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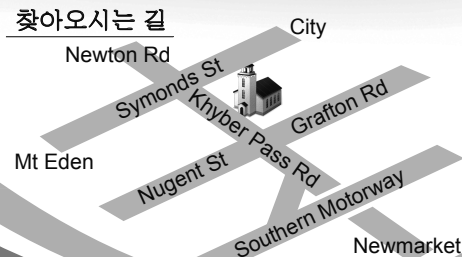
하나님 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갈보리 교회 비전

1.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2.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교회
3.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2011 교회표어: (사도행전 6:4)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예배시간안내

주일1부예배 주일 PM1:00 본당 유아부 주일 PM1:00 유아실

주일2부예배 주일 PM3:00 본당 아동부 주일 PM1:00 Chapel

수요일예배 수요일 PM7:30 본당 중고등부 주일 PM1:00 별관

새벽기도 금요일 AM5:50 Chapel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2011년 3월 27일

주보 13권 13호

www.calvary.org.nz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Ph: 09 - 369-5077

주일1부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반주자
전주		
예배로 부를	시편 116:12-14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찬송	298장 (구 35장)	다함께
*성서교독	126 사순절 (3)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95장 (구 82장)	다함께
대표기도		정관영장로
성경봉독	마태복음 4:8-11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교	세번째 시험	이태한목사
찬송	342장 (구 395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응답송	주기도문 송	다함께
*축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기도순서안내 | 다음주 기도: 이광희 장로 4월 10일: 현석호 장로

지난주일통계 | 1부 119명 2부 13명 학생부 26명 아동부 9명 유아부 17명 총계184명

성서교독 126: 사순절 (3)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 나이다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의지하였 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 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와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은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은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다같이) 여호와와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갈보리 칼럼

아주 오래 전 내가 초등학교 자연시간에 물에 대해서 공부할 때다. 물에는 단물과 센물이 있으며 비누가 잘 풀리면 단물이고 반대로 센물은 비누가 잘 녹지 않아 세탁에도 적당치 못하다는 것 등. 물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배울 때 교실 한켠엔 모래와 자갈, 숯등을 층층이 나누어 담아 놓은 여과기가 있었다. 맨위에 흙탕물을 부어 놓으면 그것들을 거쳐 아래에선 맑은 물이 푹푹 떨어지던 그 신기함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수업중에 깨끗한 물과 맑은 물중 어떤 물이 더 좋은가에 입씨름이 벌어졌다. 거의 반반씩 나뉜 아이들로 온통 난장판이 되어버린 교실,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도 않게 와글거리고 쿵쿵쿵쿵 발을 구르기도 하던 아이들... 그 소리들이 반세기를 훨씬 넘긴 지금도 귀에 들리는 듯 한데 팔짱을 낀 선생님께서선 빙긋 웃음을 머금은 채 지켜만 보셨다. 그런데 어떻게 결과가 났었는지는 까맣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생각하면 어떤것도 하나만으론 정답이 될 수 없는 것 같다. 생물학적으로 운전하다 해도 보기에 맑지 못하다면 좋은 물일 수 없고 반대로 아주 맑게 보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있다면 그 또한 좋은 물이라 할 수 없지 않을까.

나는 오래 묵은 소금물 한통을 가지고 있다. 처음 길러 지니기 시작할지 족히 10년 가까이 된 듯 하니 오래됐다 할 수 있겠다. 김치를 담글 때 배추를 절여낸 그 물은 결코 깨끗하지 못하다. 열은 흙탕물에 가끔은 곤충이 죽어 나오기도 하고, 달팽이가 죽어 떠 있기도 한다. 그런 그 물을 체에 받쳐 담아두면 결코 냉장보관하지 않아도 다음 김치를 담글 때면 신기하게도 말갈게 가라앉아 있다. 그러니 아주 작은 어떤 입자는 그 세월 나와 함께 살았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지 싶다. 새파랗게 살아있던 배추를 절여 물기를 빼주곤 자신은 다시 맑은 소금물로 ...

몇년전 아는 목사님께서 설교 하실 때 염도가 4% 정도의 바닷물은 흘러든 온갖 오물들을 받아들여 정화시키는데 한국의 기독교인 수는 통계상으로도 훨씬 높은 백분율을 자랑하면서도 점점 흉폭해지고 늘어나는 사회범죄가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무관하다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일갈하셨을 때 동감하면서 고개를 주억거렸던 생각이 난다.

물, 물은 그저 물일 뿐인데 사람들은 깨끗하고 더러움으로 등급을 매긴다. 또 녹아있는 내포물로는 꿀물이 되기도 하고 또는 흙탕물, 소금물이 되기도 한다.

내가 물이라면 나는 어떤 물일까? 그 많은 세상 의 물중 먹을 수 있는 물은 겨우 일퍼센트 미만이라는데 거기에 들기는 할까? 맑혀서 쓰임받는 물, 작든 크든 이인생활에서의 버거운 짐을 지고 언덕을 오르는 목마른 이웃에게 단 한모금의 물이라도 되어본 적이 나는 있는가? 내 고삐야 남의 열병보다 더 아프다 엄살부리며 내가 여의치 못하니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수수방관하고 살진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다. 생각해보면 빛이 되기도 어렵고 소금이 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저 간간 짹짹한 물이 되어서 내가 먼저 정화되어야 남도 맑힐텐데 나는 흐릿한 맹물이면서 남에게 간간 짹짹한 잣대로 재지는 않을까 부질없는 화두를 붙들고 사순절의 하룻밤을 설치고 있다.

해마다 사순절 기간중에 물의 날(3월 22일)이 들어있다. 한국의 녹색연합에선 우리달 열두달 중에 3월을 물오름달이라 정해놓았다. 달이름이 예쁘기도 하고 절기상으로도 뜻도 좋지만 남반구인 이곳 뉴질랜드에서는 9월달 이름인 열매달이 맞는 이름인 것 같다. 아무튼 물의 소중함이야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중에서도 마중물이 되신 예수님을 기린 글이 있어 여기에 옮긴다. 지은이는 땅끝마을 해남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시며 또 신도들이 배설해 놓은 교회의 인분을 손수 퍼내르는 농부, 또 수필가다. 어느때고 여유로운 고국 방문이 된다면 찾아가보고 싶은 거기. “참꽃피는 마을”(그분의 수필집 이름)에 그곳이 있다.

- 이경자권사

마중물이 된 사람 / 어깨춤 임의진

우리 어릴 적 평택질로 물길기 먹을 때 “아중물”이라고 있었다.

한바가지 언저 뭇구멍에 붓고 복지런히 뽕어대면

그 물이 땅속 깊이 마중나가 큰 물을 데리고 왔다.

아중물을 넣고 얼마간 뽕다보면

낭창하게 손에 느껴지는 물의 무게가 모졌다.

누군가 언저 슬픔의 마중물이 되어준 사람이 우리들 곁에 있다.

누군가 언저 슬픔의 무저갱으로 제물을 던져 도둑을 구원한 사람이 있다.

그가 언저 굶은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기에

그가 언저 강강할 수 없는 현실을 곳곳이 견뎠기에...

가난한 이들과 동고동락을 같이 하다가 끝내는 그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준 예수 그분의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 동안에 님의 고마우신 삶을 묵상 하면서...

주일2부예배

오후3시	정년찬양단	다함께
찬양		
기도	김정민집사	
성경봉독	민12:3,6-8, 히3:1-6	인도자
설교	모세보다 높으신 그리스도 심창진목사	
찬송	주님이 주신 땅으로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축도	심창진목사	

다음주 기도: 박명아집사

수요예배

오후7시30분	수요찬양단	다함께
찬양		
기도	김선화집사	
	공동체 찬양대회	
사회		강동호집사
광고		인도자
주기도		다함께

수요애찬 기도: 정진택집사
다음 수요기도: 김성희집사